

SKT, 고객 유심 정보유출 정황… 금융계좌 해킹 등 우려

사측, 악성코드 삭제 의심장비 격리
과기부-KISA, 접수 즉시 대응착수
외부 유출땀 개인정보 탈취 등 피해
“보안체계 강화, 정보보호에 만전”

SK텔레콤이 자사 고객의 유심(USIM) 관련 일부 정보가 악성코드에 의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정부에 즉각 사고를 접수한 뒤 사후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유심 해킹으로 인해 만일 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2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내부 감사를 통해 악성코드로 인한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다. 회사 측은 즉시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이 의심되는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 이어 20일 오후 4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22일 오전 10시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SKT 유심 해킹 주요내용

4월 19일(토) 23:00 SK텔레콤, 내부 감사 중 악성코드 감염 및 유심 정보 유출 정황 인지

4월 20일(일) 16:46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정식 신고

4월 21일(월) 14:10 과기정통부, SK텔레콤에 자료 보존 및 제출 요구

20:00 KISA 전문가 현장 파견 및 기술지원 착수

4월 22일(화) 1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통보 및 조사 협조 개시

정부 대응 현황

비상대책반 구성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단장
-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예정

기술지원

- KISA, 현장 대응 및 장비 분석 중

현재 피해상황

- 정확한 유출 범위·항목 파악 중
- 실제 외부 악용 사례는 미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SK텔레콤으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은 즉시 대응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오후 2시 10분 SK텔레콤에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하고, KISA 전문가들을 같은 날 밤 8시부터 현장에 파견해 기술 지원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며,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도 꾸려 심층 원인 분석 및 제발 방

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의 정확한 범위, 항목,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며, 외부에 악용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는 단순한 개인정보 노출을 넘어 통신 인증과 금융 보안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유심은 단말기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가입자 식별 번호(IMSI), 유심 일련

번호(ICCID) 등 통신망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핵심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불법 유심 복제나 도용이 이뤄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망에 접속된 다른 단말기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거나, 본인 인증을 우회당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한 이중 인증(2FA)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는 국내 환경에서, 유심 정보 유출은 금융계좌 해킹이나 소셜미디어 계정 탈취, 온라인 쇼핑물 부정 접속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피싱 문자나 스미싱을 통한 사회공학적 공격, 불법 개통 및 소액결제 사기, 명의 도용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킹 피해를 입은 장비는 ▲유심 인증 및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HLR 또는 HSS ▲고객관계관리(CRM) 등 가입자 정보가 통합 저장된 시스템 ▲접속 인증을 담당하는 AAA 서버 ▲운영자용 내부 PC나 파일서버 등 외부 접근

이 가능하거나 관리자가 자주 사용하는 터미널일 가능성이 높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단말기 해킹이 아닌 내부 인프라 감염으로 인한 정보 유출 정황이라는 점에서, 사고 장비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거나, 인증 절차에 관여한 핵심 시스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전체 시스템 전수 조사 ▲불법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 ▲피해 의심 징후 발생 시 즉시 이용 정지 및 고객 안내 조치 등의 예방책을 시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텔레콤의 기술적·관리적 보안 취약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한미동맹 새롭게 다지는 논의 물꼬 틀 것” 내달부터 휘발유 가격 L당 40원 오른다

최상목 부총리, 관세협상차 美출국
한국, 우선 협상대상 ‘1그룹’ 속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출국했다. 한국은 미국이 우선 협상대상으로 설정한 이른바 ‘1그룹’에 속해 있다. 1그룹 5개국은 우리와 일본·영국·인도·호주인데,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상위권부터 공약을 시작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경제규모에서 전 세계 2위인 중국과는 이미 보복관세 임포를 주고받았다. 또 독일(3위), 프랑스(7위), 이탈리아(8위), 스페인(14위) 등이 포진해 있는 유럽연합(EU)과도 신경전 내지 탐색전이 한창이다. 북미대륙의 캐나다(9위)·멕시코(15위) 정상들과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지난주 백악관 내 협상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일본은 GDP 4위다. 이어 인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 D.C. 출국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

와 영국이 각각 5위,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에서 양자 간 협상이 예정된 한국은 12위에 올랐다. 우리 바로 뒤가 호주(13위)다.

러시아(11위)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역 규모가 작다는 이유다. 또 다수 국가에 25% 안팎의 고세율을 매기겠다고

선언한 반면, 브라질(10위)에 대한 순위는 10%에 그쳤다. 브라질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적극 투자를 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이 GDP 15위권 국가들을 거의 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거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시 자국 교역 상대국의 사실상 90% 이상을 섭렵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최상목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함께 상대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2+2통상합의’를 갖는다. 아울러 이번 주말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춘계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23일 오전 출국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기재부,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
휘발유 인하폭 15%→10%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를 2개월 연장한다. 단, 인하율을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축소해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으나 고환율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번 조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L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

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하율 20%에서 시작해 2022년 5월 30%, 같은해 7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37%까지 오른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생산자물가 전달과 비슷… 돼지고기 6% ↑

한은, 3월 지수 120.32 ‘보합세’

생산자물가지수가 한달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이달 소비자물가도 2%대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32로 전월(120.33)과 큰 변동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2020년을 기준(=100)으로 한다. 2020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 물가가 한달 전과 비교해 0.4% 상승했다. 농산물은 딸기(-31.2%), 무(-8.4%) 등을 중

심으로 0.6% 내렸지만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 각각 1.8%, 0.5% 올랐다.

축산물 중 돼지고기는 한달 전과 비교해 6.1% 상승했고 달걀은 6.8% 올랐다. 수산물도 물오징어(19.9%), 게(22.2%)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공산품은 1차 금속제품(0.8%) 등이 올랐으나 석탄및석유제품(-4.3%)등이 내리면서 한달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2.7%)와 증기(-1.1%)등이 내리면서 0.2% 하락했다.

서비스는 금융및보험서비스가 1.5% 감소했지만,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0.5% 올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美 달러 초약세에도 ‘T의 공포’에 울상

신흥국 무역 늘고, 인플레이 하락 일반적
트럼프發 관세전쟁에 효과 향유 못해

미 달러화 가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신흥국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신흥국 달러 채무는 줄어든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전쟁이 물고온 ‘T의 공포’가 세계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면서 달러 약세 효과(수출 증가)를 향유할 수 없는 처지다.

21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 오후 3시 27분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29로 전 거래일 대비 1.1% 하락했다. 달러 인덱스는 이날 97.9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미 달러화의 종합적 가치를 나타내는 명목 실효환율(주요 교역상대국의 교역량 등으로 가중 평균한 환율)도 내리막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경제통계(FRED)에 따르면 18일 기준 명목 실효환율은 123.3365를 기록했다. 1월 10일 130.0513보다 5.16% 떨어졌다.

신흥국에선 달러 약세가 마냥 반갑지 않다. 당장 달러로 표시된 부채 부담은

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이 인용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데이터에 따르면 신흥국 부채는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불어난 결과, 총 29조 달러(4경1600조원)였다. 2023년 기준 신흥국의 국내 및 해외 부채를 합친 이자비용만 8500억달러(약 1200조원)에 달한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자국 환율로 환산했을 때 갚아야 할 대출금이 줄어든다.

문제는 달러약세의 긍정적 효과가 희미해졌다는 점이다. 달러가 약세면 신흥국의 무역 거래는 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의 신호탄을 쏘면서 커진 ‘T의 공포’가 이를 지워버렸다.

/허정윤 기자 zelkova@